한국폴리텍대학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3.(화) 12:00 (2024. 9. 4.(수) 조간)

폴리텍대학, 첨단산업 훈련 기회 대폭 늘린다

- 하이테크과정 91개 직종 2,030명 → 내년 111개 직종 2,430명
- 클라우드컴퓨팅과, 반도체응용설계과, 물류자동화시스템과 등 신설

#. **박재원(30·남) 씨**는 **전문대 자동차개발과를 졸업**한 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이직을 반복**하며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박 씨는 **실무를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10개월간 기술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실습 프로젝트 작품을 지도교수와 함께 다듬어 특허 출원**했고, 지난해 11월 **'자동차 진단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에 공동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취업에도 성공해 현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인 코리아에프티㈜ 연구개발팀에서 설계 직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박 씨와 같은 **청년층**의 **미래 유망 분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폴리텍대학은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91개 직종 2,030명**에서 **내년 111개 직종 2,43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하이테크과정 연도별 훈련 인원 및 직종 수>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수	545명	775명	960명	1,095명	1,230명	1,530명	2,030명	**2,430명**
직종수	20개	31개	39개	45개	51개	66개	91개	**111개**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신기술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또는 1년간 **단기 집중훈련**을 하는 만큼, 현장성 높은 훈련이 취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의 **최근 3년 평균 취업률**은 **79.1%**에 달한다.

하이테크과정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올해 **반도체, 바이오, 자동화,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계열에서 학과 신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정수캠퍼스 클라우드컴퓨팅과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에 따라 지속 성장 중인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보안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아산캠퍼스 반도체응용설계과는 초고주파 반도체 모듈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로 천안·아산 지역 반도체 산업 인력 공급을 목표로 개설된다.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는 첨단기술 기반 물류자동화시스템 설계·검증·제어·유지보수가 가능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지난해 10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와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현장 맞춤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선도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4만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미래 경제의 주역인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고 눈높이에 맞는 유망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지속 확대해 청년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구연욱 (032-650-6740)
		담당자	차 장 이채민 (032-650-6742)
담당 부서	기획조정국 기획부	책임자	부 장 김태우 (032-650-6620)
		담당자	과 장 정바울 (032-650-6625)







붙임	관련 사진



▲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 훈련생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스마트 시스템 제어 실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하이테크과정 훈련생들이 엔진 분해 조립 실습을 하고 있다.